# 인간성을 되찾자 〈4〉

## 의식개혁 캠페인

94.9.26

# 競爭만 있고 友情은 없다

## 성적위주敎育 이기주의자 量産

국민학교 4학년 아들을 둔 金모 주부(38·서울 성북구 동선동)는 최근 우연히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 "친구가 밉다"

산수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같은반 친구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일기에 썼기 때문。 金씨는 『착하기만한 줄 알았던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를 죽이고 싶다고 쓸 정도로 국민학생들간에 경쟁의식이 치열한 것인지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란다。 서로 앞을 다투는 동안 같은반 친구는 친구이면서 또한편 「적」이 된다。 서로 공책을 빌려주지 않고 과외받는 사실을 숨기는 관계에서 깊은 마음이 오갈리 없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얼마전에 귀국한 尹모씨(57·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는 며칠전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 집들이를 하는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집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기에 찾아가 ·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내가 내집에서 떠들 자유도 없느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더라는 것。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일본에서는 집에 사람 초대를 할때 미리 이웃집에 간단한 선물을 돌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 도덕교육 뒷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미풍양속은 옛이야기가 됐고 바삐 오가며 몸을 부딪쳐도 미안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다。 젊은 부모들은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신발을 신은채 좌석에 올라가는 자기 아이를 야단치기는커녕 이를 나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 기죽이지 말라고 항의하기 일쑤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기주의는 학교가 바로 그 토양이다。 인간됨(도덕)과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시험에 필요한 지식주입만이 판을 치게 됐다。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어린이가 반장 회장을 맡는다。 어린이의 인간성마저도 성적으로 측정된다。 윤리나 도덕 과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이나 영어과목처럼 점수를 따기 위한 과목일 따름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답인지 외워서 쓰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식전수에 쏠린 교육은 결국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군산YMCA가 군산시내 20개 중고등학교 학생 2천8백57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71·1%가 권력이나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답한 학생도 55·1%로 절반이 넘었다。 또 70·5%는 대학을 나와야 사람행세를 할수 있다고 했다。

### 사랑 가르쳐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적에 매달리는 것이 그들만의 탓은 아니다。 대학이 돈과 편안함과 출세의 길로 인식된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병폐는 고쳐질수 없다。 대학에 가야만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현실과 매년 대학입시 희망자들이 대학문턱을 넘어설수 없는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학력간 임금격차와 직업간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입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치열할수밖에 없다。(金世嫒)

2면에 계속

황금사자기 야…
△오전10시
△12시30분
△오후3시
△오후5시30분